

“우아함, 지성, 그리고 피아노적 아름다움” — *bachtrack*

대한민국 출신 피아니스트 임성현은 비엔나의 모차르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유럽 데뷔를 가진 이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파리 Salle Cortot, 메츠 Arsenal, 브뤼셀 Palais des Beaux Arts, 그리고 라이프치히 MDR 방송 등 저명한 무대에서 연주해왔다. 최근에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폴란드, 헝가리, 터키, 중국, 한국 등지에서 독주회와 오케스트라 협연을 이어가고 있다.

임성현은 2022년 제5회 이스탄불 오케스트라 시온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했으며, 2023년 프로 무지시스 국제 음악상을 받았다. 또한 2024 독일 ZF Musikpreis 국제 피아노 콩쿠르, 제 66회 이탈리아 비오티 국제 음악 콩쿠르, 2017 모스크바 오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21 스페인 Clamo Music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5 비엔나 로사리오 마르시아노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그녀는 남서독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모차르테움 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트 라이헨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Musikalische Komödie 오케스트라, Zabrze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이스탄불 오케스트라 시온, 엑상프로방스 지오코소 오케스트라, 군포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이온 마린, 윤한결, 마티아스 포렘니, Mariusz Smolij, Orçun Orçunsel, Alexander Drčar, Sławomir Chrzanowski, 여자경 등 지휘자들과 함께 작업했다.

임성현은 서울대학교에서 아비람 라이헤르트를 사사하며 우등 졸업으로 학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대학교에서 자크 루비에에게 사사하며 석사 및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쳤고,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에서 크리스티안 폴에게 사사하며 마이스터클라센엑자멘 과정을 졸업했으며, 그곳에서 조교로도 활동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멘토로는 파울 굴다와 허은주가 있으며, 서울에서는 최승혜와 박지원을 사사하였다. 또한 파울 바두라스코다, 메나헴 프레슬러, 아리에 바르디, 엘리자베스 레온스카야, 막심 베게로프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마스터클래스와 지도를 통해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임성현은 교육자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툴루즈와 함부르크의 마스터클래스에서 지도했고, 독일 ZF Musikpreis 국제 콩쿠르와 MaiFestival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2022년과 2023년 무지카 문디 페스티벌의 교수진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엘프룬 가브리엘 재단 2023/24 장학생이며, 라이프치히 쇼팽 협회의 회원이다.

2025년 10월부터는 라이프치히 국립음악대학교 “펠릭스 멘델스존 바르톨디”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